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Maternal Support Networks, Perceptions of Parenting Difficulty,
and Children's Development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은해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
Professor: Rhee, Un Hai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분석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hips of child development with maternal social networks and maternal perceptions of parenting difficulty. Subjects were 90 children, ages 4 and 5, with their mothers. Child development was measured by School Readiness Test, peer nomination, and social competency ratings by teachers. Mothers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regarding social networks and parenting difficulty.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include:

- 1) Employed mothers reported receiving less emotional support and listed more in-laws and work colleagues in their social network than unemployed mothers.
- 2) Mothers who perceived receiving more emotional support from networks reported less difficulty in parenting, especially in providing cognitive stimulation and daily routine care to their children.
- 3) Children's age and maternal perceptions of easiness in providing cognitive stimulation were the most contributing factors for predicting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and social competency.

* 이 논문은 1995년도 연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서론

아동이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도 자신이 속한 환경내의 대인관계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습득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족, 친척, 동료 등 사회적 유대관계로부터의 지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Belsky, 1984; Bronfenbrenner, 1977; Cochran & Brassard, 1979). 어머니가 가진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인간발달의 생태학적 관점에 대한 학계의 흥미를 반영하는 것이며, 나아가 아동발달에 대한 전통적인 모델인 모-자녀 관계로부터의 확장을 위한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Salinger, 1990).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발달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고찰한 Cochran과 Brassard(1979)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은 자녀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달을 자극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아동에게 사회적 모델을 제시해 주고 다양한 대인관계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인지 및 사회적 자극의 촉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예로서, Tietjen(1985)은 스웨덴의 어머니와 8, 9세 자녀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관계망 특성과 딸의 친구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두 변인간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어머니의 관계망에 이웃 및 친구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딸은 여러 친구를 동시에 사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김숙영(1996)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체계의 특성과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관련되어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육태도와 행동이 결과적으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받은 관계망으로부터의 지원정도는 양육행동에서의 반응성, 온정적 특성, 바람직한 역할 수행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누적되고 있다

(Abernathy, 1973; Crittenden, 1985; Jennings, Stagg & Connors, 1991; Levitt, Weber & Clark, 1986).

Abernathy(1973)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망을 밀접하게 형성한 부모들이 양육자로서의 역할수행에서 유능감이 높았다고 하며, Crittenden(1985)은 학대집단에 비해 정상집단의 사회적 관계망이 안정적이고 외부지원에 대해 개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Levitt 등(198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정서적, 도구적 지원이 어머니의 정서와 생애만족감 그리고 양육과제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이 양육의 실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아동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부모가 어떻게 양육과제를 지각하는가 하는 것도 부모의 양육 실제 및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지 심리학의 중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강조됨에 따라 부모의 행동 못지 않게 부모의 양육에 관련된 신념, 지각 등 인지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Ladd & Price, 1986; Miller, 1988). Ladd와 Price에 의하면, 아동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양육과제에서 어려움을 지각하는 부모일수록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적 능력은 저하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부모의 양육과제에 대한 지각이 부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발달에도 연관된다고 가정되나, 이에 관한 경험적 증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취업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 문제는 아동학, 유아교육 및 가족학 분야의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으게 한다. 취업모의 자녀는 전업주부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지원 및 그 영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 이루어진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가 외국에서는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Crockenberg, 1981), 사회·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가족, 편모, 조산아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Crm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Weintraub & Wolf, 1983).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역할에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을 다룬 연구들이 최근에 발견되고는 있으나(김숙영, 1996; 성영혜, 1993),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정의와 접근 방식이 다양하여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가 어떻게 아동발달로 연결될 수 있는지의 과정을 밝혀보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Melson, Ladd & Hsu, 1993).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에 관련된 변인으로 양육자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과 양육과제에 대한 지각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을 조사하고 이 변인과 양육곤란도 지각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이은혜 · 이미리, 1996)의 후속 연구로서 4, 5세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아동발달 변인이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 및 양육과제에 대한 지각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관계망과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차이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그 정의와 측정 방법에 대해 논쟁이 제기되기도 한다(Cohen & Wills, 1985; Pearson, 1986). 대체로 사회적 관계망이란 어느 한 개인을 중심으로 그 개인과 상호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간의 연결망(set of connections)이라고 할 수 있다(Cochran, 1993; Salzinger, 1990).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을 세분화하면, 개인적인 관계망과 자녀양육에 대한 관계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관계망은 어머니의 생애 전반에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자녀양육에 대한 관계망은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제한된 개념이다(Jennings, et al., 1991).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기술된다. 관계망의 구조(structure)는 구성원

간의 연결 유형을 말하며, 기능(function)은 구성원간 공유되는 활동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예컨대, 사회적 관계망의 주요 기능은 지원(support)을 제공하는 것이며, 때로는 갈등과 통제 등 지지적이 아닌 기능을 할 수도 있다(Cochran, 199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자녀 양육에 관련된 관계망으로 정의하였고, 지원기능과 함께 갈등 및 통제의 기능도 포함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취업모는 전업주부에 비해 친정부모, 시부모, 자신이나 남편의 형제 및 친척 등 주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며(이경미, 1993; 이은혜 · 이미리, 1996; 전춘애 · 박성연, 1996), 전업주부는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가 높고(전춘애 · 박성연, 1996), 관계망 구성원과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이은혜 · 이미리, 1996).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아버지의 관계망을 살펴 본 Riley (199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버지 관계망의 효과가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즉 취업모 가족에서 아버지의 관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혈연관계 유무로서 비혈연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친척의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가족의 경우 관계망에 속한 남성 변인의 효과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관계망에 남성이 많이 포함될수록 아버지-자녀간의 놀이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본인에게는 물론 가족관계 및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달라지는가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2.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난이도 지각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을 다룬 과거의 연구들은 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 즉 미혼모, 확대가정, 조산아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크고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이들 가정

의 어머니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이며 (Belle, 1982; Crittenden, 1981),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Cmic, et al., 1983), 개인적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Cohen & Wills, 1985). 또한 편모 가족이 양부모 가족에서보다 관계망의 구성원 수가 적고 친척의 포함 비율이 낮으며, 사회적 고립의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다(Weintraub & Wolf, 1983). 대체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연구들은 가족의 위기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작용(buffering effec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들이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정상 가족에도 일반화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최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Jennings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1991)은 4, 5세 정상 유아 44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어머니들이 사회적 관계망에 만족하고 지지적인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어머니 양육행동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하며 강압적인 통제는 적었다고 한다. Belsky(1984)가 제시한 부모역할에 관한 변인들의 모형에 의하면,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망은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줄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역할에 긍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어머니로 하여금 아동의 인지적 기능과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과제에서 어려움을 적게 지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의 발달을 돕는 과제가 쉽다고 느끼는 부모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유지에 보낼 수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Cochran과 Henderson (1990)은 미혼모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에 대한 지각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주요 관계망에 혈연관계가 많이 포함될수록 아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Melson, Ladd 그리고 Hsu(1993)는 평균 4세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이 자녀의 인지 또는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한 과제를 얼마나 어렵게 느끼는가를 조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관계망으로부터의 지원에 만족할수록 양육과제들이 덜 어렵다고 지각하였다. 우리나라 3~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은혜·이미리, 1996)에서도 어머니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양육 과제 전반에 대해 어려움을 덜 지각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때로는 통제하는 기능을 통해 양육과제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어머니의 지각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가정된다(Luster, Rhoades & Haas, 1989).

3.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발달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이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영아와 어머니 48쌍을 대상으로 Crockenberg (1981)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애착형성을 조사하였는데,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적절성은 영아의 안정적 애착을 일관성있게 예언한다고 했다. 특히 다루기 힘든 영아의 경우 사회적 지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Crittenden(1985)은 확대가족과 정상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과 영아의 애착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관계망이 안정적, 협조적이고, 외부 지원에 대해 개방적일 때, 영아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두 변인간의 관계성은 발견했으나, 확대유형 변인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의 설명력은 낮았다고 하였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관계망과 자녀의 사회성을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 어머니의 관계망에 이웃 친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8, 9세 딸의 친구관계가 원활한 것을 발견하였고(Tietjen, 1985), 부모에게 믿음만한 친구가 최소 1명 이상 있다고 보고한 경우 9~11세 자녀는 친구집단과 친밀한 우정관계를 보고하였다(Homel, Burns & Goodnow, 1987).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Melson 등(199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양적, 질적 특성이 4세 아동의 인지 수행을 직접적으로 예언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또래 수용을 예언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 과제에 대한 곤란도 지각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효과는 간접적이라고 하였다. 즉 아동 발달의 변인 및 사회적 관계망의 차원에 따라 매개변인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김숙영(199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발달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 정도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양에 대한 인지 능력과, 관계망의 크기는 공간관계에 대한 인지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 본 아동발달 변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설명력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발달간의 관계는 더 많은 실증적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Cochran과 Brassard(1979)의 개념적 틀에서도 지적된 바,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은 아동과의 접촉 및 모델링을 통해 직접적으로 아동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지지할만한 경험적 증거가 요구된다.

4. 어머니의 양육과제에 대한 지각과 아동발달

아동양육에 관련된 과거의 연구들에 기초해 볼 때 (Maccoby & Martin, 1983), 부모의 지각이 아동의 능력과 상호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아동이 가진 자아지각이나 능력은 부분적으로 부모의 태도와 관점에 의존하며(Sameroff & Seifer, 1983), 반면 아동의 특성은 부모의 지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Goldberg(1977)는 부모에게 반응이 없는 영아가 부모로 하여금 무능감과 무기력감을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인지적 발달 및 사회적 발달을 돕는 것이 더 어렵다고 지각하는 부모의 아동이 이러한 과제를 쉽다고 지각하는 부모의 아동보다 능력이 뒤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Ladd와 Price(1986)는 8~11세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곤란도 지각과 아동의 자아지각 및 실제능력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아동의 인지발달 및 사회성 발달 과제에 대한 부모의 곤란도 지각은 아동의 실제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이러한 과제를 어렵다고 느낄수록 아동의 실제 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과제를 어렵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이 부모역할에 대해 무력하게 느끼거나 기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아동의 발달에도 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의 방향은 반대로 생길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과제에 대한 지각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양육자의 지각적 요소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특성, 양육과제에 대한 난이도 지각, 아동발달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양육과제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아동의 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어머니의 양육과제에 대한 난이도 지각은 아동의 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5.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 및 양육과제에 대한 난이도 지각이 아동의 발달을 설명함에 있어서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1개 대학부설교육기관과 1개 어린이집에 등록된 4, 5세 아동 90명과 그 어머니들로 짝지어져 구성되었다. 이들은 이은해·이미리(1996)의 연구 대상이었던 어머니 133명 중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3세 자녀와 어머니, 그

리고 장기 결석 및 이사 등으로 변동이 생긴 사례를 제외시킴으로써 선정되었다.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4세 42명, 만 5세 48명, 평균 연령은 5.4세였다. 성별로는 남아 42명, 여아 48명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 54명, 둘째 또는 그 이후가 36명이었다.

연구 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5세, 남편은 38세였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자료로서 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대졸(56.7%), 남편의 경우 대학원졸(50%)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직업은 44%가 전문직이었다. 어머니가 부분 또는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는 전체의 56%였다. 응답자가족의 월소득은 150만원에서 1000만원, 평균 350만원이었으며, 가구원 수는 평균 4.4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인구론적 특성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론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아동의 연령	4세	42 (46.7)
	5세	48 (53.3)
아동의 성별	남 아	42 (46.7)
	여 아	48 (53.3)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 졸	8 (8.9)
	대 졸	51 (56.7)
	대학원졸	31 (34.4)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 졸	3 (3.3)
	대 졸	41 (45.6)
	대학원졸	45 (50.0)
	무 응 답	1 (1.1)
어머니의 취업상태	전업주부	39 (43.3)
	부분취업	11 (12.2)
	전일제취업	40 (44.4)
어머니의 직업	무 직	39 (43.3)
	판매/서비스직	2 (2.2)
	사 무 직	18 (20.2)
	전 문 직	31 (34.4)
아버지의 직업	판매/서비스직	5 (5.6)
	사 무 직	31 (34.4)
	관 리 직	12 (13.3)
	전 문 직	40 (44.4)
	무 응 답	2 (2.2)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조사」와 아동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세가지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용 설문지는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에 관한 난이도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었다. 사회적 관계망을 조사하는 설문은 어머니의 관계망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제공하는 지원 및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구성원 수), 범주수와 함께 세가지 지원 기능 및 갈등·통제 기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지원 기능의 세가지 하위 요인은 정보제공(4문항), 직접돌봄(3문항), 그리고 정서적 지원(4문항)이며, 갈등·통제(2문항)의 기능과 함께 총 13개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는 .82로 산출되었다. 각 문항은 1~4점의 평정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 및 통제의 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은 일상적 돌보기(4문항), 친구관계돕기(3문항), 인지적 자극(2문항)의 세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측정되었으며 총 9개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는 .72로 산출되었다. 각 문항은 1~7점의 리커트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과제의 난이도가 쉽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용 설문지의 개발 및 요인분석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이은해·이미리(1996)의 연구에서 술하였다.

아동의 발달을 평가하기 위한 세가지 도구의 성격, 실시와 채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준비도 검사: 아동의 인지능력을 학습준비도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 학교준비도 검사가 선정되었다. 측정 영역은 수개념, 감각개념, 연상적 어휘, 개인/사회적 반응의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반분신뢰도는 .95, 유아지능검사와의 공인타당도가 .53으로 보고되었다(이은해, 1995, p. 231). 훈련된 연구보조자가 개별적으로 아동을 검사하였으며, 문항별 정답반응에 1점씩 배정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2) California 사회적 능력척도: 이 도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 관찰적으로 California Preschool Social Competency Scale(Levine, Elzey, & Lewis, 1969)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다. 이 척도는 4단계 기술평정척도로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관찰을 통해 수정되고 완성되었다. 문항별 1~4의 평정점수를 합해 총점을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담당 교사에게 의뢰하여 아동의 놀이실내 대인 행동, 활동에의 참여, 사회적 적응 정도를 관찰하고 평정하도록 하였다. 담당교사와 연구보조자가 예비관찰을 통해 관찰신뢰도를 점검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 α 는 .93으로 발견되었다.

3) 또래지명검사: 아동의 또래간 사회적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 방법이 적용되었다. 유아의 성에 따른 편파성이 지적되었으므로(Asher & Hymel, 1981), 각 학급별 아동을 성에 따라 구분하고 연구보조자가 구분된 아동들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에 관련된 상황은 '생일초대'와 '견학시의 짝'이었고 두가지 상황에 대해 원하는 아동 및 하고 싶지 않은 아동을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아동별 총 수용빈도와 배척빈도를 산출한 후, 이를 Z점수로 변환하고, 변환된 수용점수에서 배척점수를 제하여 또래인기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본 연구의 자료 중 어머니용 설문지는 1995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담당교사를 통해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아동에 관한 검사 및 관찰자료는 설문지가 회수된 어머니의 자녀 중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집되었다. 자료의 분석절차로는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각 변인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F검증을 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 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 아동발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동발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난이도 지각

의 상대적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분석

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

연구문제 1에서 제기한 바,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 아동발달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 변인별로 F검증한 결과, 사회적 관계망 특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아동발달 및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지각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두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사회적 관계망 특성의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F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특성의 차이

관계망 특성	전업주부(n=39)		취업모(n=51)		F
	\bar{X}	(SD)	\bar{X}	(SD)	
관계망 크기	6.77	(3.47)	6.37	(3.13)	.32
관계망 범주수	5.62	(2.39)	5.31	(2.16)	.39
정보제공 기능	2.60	(.29)	2.58	(.37)	.06
직접돌봄 기능	2.35	(.32)	2.43	(.38)	1.08
정서적 지원	2.87	(.30)	2.71	(.26)	7.95**
갈등·통제	1.78	(.38)	1.64	(.35)	3.31*

** p < .01 * p < .10

<표 2>에 의하면, 전업주부가 취업모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주부가 갈등과 통제를 취업모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검증결과 유의도(p = .07)는 경계선 수준이었다. 한편 사회적 관계망의 양적인 특성, 즉 관계망 크기와 범주수, 그리고 정보제공 및 자녀를 직접 돌보아주는 지원 기능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범주수에서 집단간 차이는 없었으나, 관계망을 이룬 구성원의 특성을 기술

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함된 빈도를 취업여부에 따라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어머니들이 보고한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은 다양한 유형이나 공통적으로 50% 이상의 어머니들이 친정 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친정 여형제를 관계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혈연관계에서의 포함 백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업주부들은 친정 식구의 포함 비율이 더 높으며 취업모들은 시댁 식구의 포함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혈연 관계의 구성원을 비교하면, 전업주부들은 자녀 친구의 엄마와 가사관리인을 사회적 관계망에 더 높은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나, 취업모의 경우 직장의 동료 및 선후배의 포함율이 전업주부에 비해 높았다.

<표 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별 포함 빈도

구 성 원		전업주부(n=39)	취업모(n=51)
		f (%)	f (%)
혈	남 편	26 (66.7)	31 (60.8)
	자녀의 누나, 언니	5 (12.8)	0
	시아버지	8 (20.5)	12 (23.5)
	시어머니	22 (56.4)	33 (64.7)
	시 누 이	8 (20.5)	14 (27.5)
	시동생, 시아주버니	1 (2.6)	3 (5.9)
	기타 시댁식구	1 (2.6)	9 (17.6)
연	친정 아버지	11 (28.2)	10 (19.6)
	친정 어머니	32 (82.1)	34 (66.7)
	친정 여형제	25 (64.1)	27 (52.9)
	친정 남형제	4 (10.3)	5 (9.8)
	기타 친정식구	4 (10.3)	9 (17.6)
비	학교 친구	11 (28.2)	14 (27.5)
	이 윗	11 (28.2)	14 (27.5)
	직장동료 및 선후배	1 (2.6)	13 (25.5)
	자녀 친구의 엄마	10 (25.6)	5 (9.8)
	기관 의사, 원장	19 (48.7)	23 (45.1)
	가사관리인	18 (46.2)	13 (25.5)
연	의사, 기타	2 (5.2)	2 (3.9)

변인의 통계를 위한 추가분석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인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분류, 월 평균 수입 등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에서 밝혀진 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른 변산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난이도 지각간의 관계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변인들과 양육에 대한 지각 하위요인들과의 관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각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상관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4>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은 양육난이도 지각의 하위요인 중에서 일상적 돌보기 및 인지적 자극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즉 어머니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 양육에서 일상적인 돌보기나 인지적 자극의 제공이 쉽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직접돌봄의 지원과 양육난이도의 친구관계됨기에 대한 지각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관계망으로부터 자녀를 대신 돌보아주는 지원이 많을수록 친구관계를 도와주는 일이 어렵다고 지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3.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양육난이도 지각과 아동발달간의 관계

아동발달 수준이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변인 및 양육난이도 지각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하위 요인별로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별도로 분석했을 때 상관 패턴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5>에 의하면, 아동의 학습준비도는 어머니의

〈표 4〉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난이도 지각간의 관계

(N = 90)

양육난이도 지각	사회적 관계망				
	관계망크기	정보제공	직접돌봄	정서적지원	갈등.통제
일상적 돌보기	.06	.03	.04	.19*	-.09
친구관계 돕기	.04	.02	-.24**	.06	-.04
인지적 자극	.04	.13	.09	.26**	.12

** p < .01 * p < .05

〈표 5〉 아동발달과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및 양육난이도 지각간의 관계

(N = 90)

아동발달	사회적 관계망					양육난이도 지각		
	관계망크기	정보제공	직접돌봄	정서적지원	갈등.통제	일상적돌보기	친구관계돕기	인지적 자극
학습준비도	.07	.12	.15	.27**	.15	-.11	-.08	.30**
사회적능력	.01	.16	-.01	.14	.14	-.09	.04	.35**
또래인기도	.12	-.12	-.26**	-.15	.09	-.01	.28**	.03

** p < .01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 양육난이도 지각의 하위 요인 중 인지적 자극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 인지적 자극을 주는 것이 쉽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학습준비도 수준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어머니의 양육난이도 지각 중 인지적 자극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인지적 자극을 주는 것이 쉽다고 느낄수록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또래간 인기도는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직접돌봄의 지원과 유의한 부적 상관, 양육난이도 지각 요인 중 친구관계돕기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주었다. 즉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이 자녀를 대신 직접 돌보아주는 지원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는 낮았으며, 자녀에게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는 것이 쉽다고 어머니가 지각할수록 아동의 또래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및 양육난이도 지각의 효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난이도 지각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 그리고 추가로 분석된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므로, 단순상관관계의 분석만으로는 이들 변인의 아동발달에 대한 순 효과(real effect)를 알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5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각각의 고유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아동의 성, 연령,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포함시켰으며, 2단계에서는 사회적 관계망변인, 3단계에서는 양육난이도 지각의 하위요인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상관계수의 범위는 .01에서 .41로서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 이들 독립변인을 모두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아동의 학습준비도, 사회적 능력 및 또래 인기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학습준비도 변량의 28%를 의미있게 설명하였다. 이는 독립변인들 가운데 아동의 연령이 학습준비도의 예언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회귀분석의 2단계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6%의 변량을 추가시켰으나 그 중의 어떠한 변인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양육난이도 변인 중 인지적 자극의 효과로 인해 9%의 설명변량을 증가시켰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독립변인들은 아동의 학습준비도 변량의 43%를 설명하며, 특히 아동의 연령과 자녀양육에 있어서 인지적 자극에 대한 어머니의 난이도 지각이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학습준비도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1단계에서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아동의 사회적능력 변

량의 15%를 의미있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에 의한 효과가 유의하였다. 회귀분석의 2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추가된 사회적 관계망 변인들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설명변량을 의미있게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난이도 지각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설명변량을 13% 추가함으로써 이들 독립변인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점수 총 변량의 31%를 설명하였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연령과 인지적 자극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난이도 지각이 사회적 능력의 예언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아동의 또래간 인기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아동의 연령, 성, 어머니의 취업여부,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 및 양육난이도 지각 등의 효과를 보여주는 회귀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설명변량인 R²도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양육과제 요인 중 어머니의 친구관

〈표 6〉 아동발달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학습준비도			사회적 능력			또래인기도		
	R ²	b	β	R ²	b	β	R ²	b	β
1단계									
아동의 성		.13	.01		4.50	.16		-.18	-.05
아동의 연령		4.88***	.51***		8.37**	.31**		.09	.03
어머니 취업여부		-1.09	-.11		-4.46	-.16		-.13	-.04
	.28***			.15*			.01		
2단계									
관계망크기		.17	.12		.14	.04		.01	.02
정보제공		.01	.00		6.60	.16		.20	.04
직접돌봄		1.96	.14		-3.16	-.08		-1.06	-.21
정서적지원		1.48	.09		-5.03	-.11		-1.40	-.23
갈등·통제		.43	.03		-1.78	-.05		-.29	-.06
	.34***			.18			.14		
3단계									
인지적 자극		.94**	.27**		3.61**	.37**		.10	.08
일상적돌봄		-.71	-.15		-1.38	-.10		-.06	-.03
친구관계돕기		-.23	-.06		-.39	-.04		.31*	.24*
전체 R ² (F)	.43*** (4.79***)			.31* (2.52*)			.20 (1.58)		

*** p < .001 ** p < .01 * p < .05 +p < .10

계둑기에 대한 난이도 지각에서 β 계수가 .24로 경계선 수준($p = .06$)에 이르고 있으므로 또래 인기에 대한 이 변인의 효과를 어느정도 추측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이들 변인이 아동의 또래간 인기를 의미있게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4, 5세 아동 90명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변인이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 특성 및 양육과제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본 연구 변인들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영역은 단지 사회적 관계망의 정서적 지원 기능에서 뿐이었으며, 전업주부들이 정서적 지원을 취업모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이 하나의 지위 변인(status variable)으로서 본 연구와 같이 두 집단간 사회경제적 배경이 동등한 경우, 다른 변인들에 영향을 줄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아동발달 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 난이도 지각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최근까지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지지된 바이다(Belsky, Lerner, & Spanier, 1984).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관계망을 이룬 구성원들이 친정 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친정 여형제 등 가까운 혈연관계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정의가 자녀양육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녀양육은 부부에게 주어진 과제일 뿐 아니라 확대가족과의 긴밀한 유대속에서 수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관계망을 이루는 구성원에서 두 집단간 흥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전업주부의 관계망에는 혈연관계 중에서 친정식구의 비율이 높았고,

반면 취업모들은 시댁식구의 포함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비혈연관계의 구성원을 보면, 전업주부들은 자녀 친구의 엄마와 가사관리인의 비율이 높았으나, 취업모의 구성원에는 직장동료 및 선후배의 비율이 전업주부에 비해 높았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체감의 발달이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Cochran(1993)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특히 취업모의 경우 시댁식구들을 더 많이 관계망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부인의 취업에 따른 시댁에서의 위치를 가능하게 해주며, 혈연관계 외의 직장 동료 및 선후배와의 보다 빈번한 관계를 통해 자아발전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전업주부들은 친정식구와의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취업모보다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기능은 양육과제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정서적 지원이 많다고 느낄수록 어머니들이 자녀를 일상적으로 돌보아 주거나 인지적 자극을 주는 것이 더 쉽다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가족에서 발견된 과거의 연구들(Cochran & Henderson, 1990; Cmic, et al., 1983)을 지지하는 것이며, 일반가족 및 아동에게도 일반화할 수 있는 증거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은 어머니로 하여금 대인관계에 대한 내적 작용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양육과제를 쉽게 느끼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Crockenberg, 1988).

한편 관계망으로부터 직접돌봄의 지원기능은 양육과제 중 친구관계 돕기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어머니가 직접 돌보아 주는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의 친구관계 돕기를 어렵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은혜·이미리(1996)의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우리나라 대상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는 어머니이외의 성인들이 직접적인 자녀양육에 다양하게 참여하면서 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실제 또래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구관계 발달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이를 어려운 과제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째, 아동발달변인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및 양육난이도 지각의 관계는 단순상관과 회귀분석 결과를 함께 통합시켜서 논의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발견은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사회적 능력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지각 및 아동 연령의 효과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으며, 반면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의미있는 기여를 못하였다는 점이다. 즉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인지적 자극 과제를 쉽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사회적 능력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행동못지 않게 부모들이 가진 신념, 지각 등 인지적 요소가 아동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Ladd & Price, 1986; Miller, 1988). 한편 이 결과는 아동의 학습준비도와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 때문에 어머니가 인지적 자극 과제를 쉽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변인간 영향의 경로는 보다 통제된 연구를 통해서만이 명료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동발달변인과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간에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유의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발달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 효과가 회귀분석에서 의미없게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의 직접적인 효과를 제안한 Cochran과 Brassard(1979), Melson(1993) 등의 연구결과와는 상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김숙영(1996)의 연구에서 보면, 아동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Crittenden(1985)도 아동의 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사회적 관계망보다 확대유형변인의 설명력이 더 크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이 아동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 다음 또래 인기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독립변

인들의 전체적인 설명력을 보여주는 $R^2(.20)$ 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에서 친구관계됨기 과제에 대한 β 계수의 유의도가 $p = .06$ 에 이르고 있으며, 종속변인과의 단순상관인 $.28(p < .01)$ 이었으므로 이 두 변인간의 관계성에 기초하여 이 변인의 효과를 어느정도 추측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친구관계됨기를 쉽다고 느끼는 것이 자녀의 또래간 인기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종속변인인 또래간 인기도의 측정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령단계 유아의 또래지명미 안정적이지 못하여 신뢰도가 낮다는(Asher & Hymel, 1981)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 인기도 Z점수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평균은 .11이고 표준편차가 1.76으로 나타났다. 즉 Z점수의 특성에 따라 평균에 비해 변산이 지나치게 크고 분석에서 측정의 오차를 증대시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다른 해석은 보다 근원적인 이유로써 또래간 인기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차원으로서 성인에 의한 평가와 다른 측면, 즉 다른 구인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또래 인기도 점수에 기초한 결과가 교사평정에 의해 수집된 사회적 능력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 점이 이를 시사한다. 아동의 또래간 인기도는 아동이 속한 집단의 구성, 조사시기, 상황에 따라 역동적 관계 속에서 표출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또래관계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동-성인 관계의 맥락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발달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Lewis와 Shaeffer(1981)의 연구에서도 학대아동 중의 일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적 행동을 발달시켰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첫째, 아동발달에 대한 예언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지각이 양육의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

의 양육에 대한 지각과 양육의 실제 행동을 동시에 포함시킨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상층에 편중되어 있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앞으로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다르게 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인의 종류와 하위변인 수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의 자료는 어머니별로 요약된 특성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Salzinger, 1990) 이를 구분해서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연구의 결과에서 학습준비도와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의 하나가 연령임을 고려할 때,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도 있겠으나 사례수가 적어서 이를 시도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 및 정서적 지원에서 차이가 있으며, 아동의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 양육과제를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느끼는가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양육관련 변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안한다면,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이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연결되는가를 밝히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부모의 지각과 양육 행동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세분화시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발견된 자료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가족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일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을 보다 넓은 생태학적 맥락에서 조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숙영(1996).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유아

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 성영혜(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3) 이경미(199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탁아시설에 대한 요구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4) 이은혜(1995). 아동발달의 평가와 측정. 서울: 교문사.

5) 이은혜·이미리(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7:2, 61-78.

6) 전춘애·박성연(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30.

7) Abernathy, V.(1973). Social network and response to the maternal rol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3, 86-92.

8) Asher, S. R., & Hymel, S.(1981).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 Sociometric and behavioral assessment. In J. D. Wine & M. D. Smye(Eds.), *Social competence*(pp. 125-157). New York: Guilford.

9) Belle, D.(1982). Social ties and social support. In D, Belle(Ed.),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pp.168-181). Beverly Hills, CA: Sage.

10)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11)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ew York: Random House.

12) Bronfenbrenner, U.(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13) Cochran, M.(1993). Parenting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pp. 149-17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14) Cochran, M., & Brassard, J. A.(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15) Cochran, M., & Henderson, C.(1990). Network influences upon perception of the child: Solo parenting and social support. In M. Cochran, M. Larner, D. Riley, L. Gunnarsson, & C. Henderson, Jr.(Eds.), *Extending families: The social networks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pp. 119-13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6)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17) Crittenden, P.(1981). Abusing, neglecting, problematic, and adequate dyads: Differentiating by patterns of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27*, 1-18.
- 18) _____ (1985). Social networks, quality of child rear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6*, 1299-1313.
- 19) Crnic, K., Greenberg, M., Ragozin, A., Robinson, N., & Basham, R.(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20) Crockenberg, S.(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7-865.
- 21) _____ (1988).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In H. Fitzgerald, B. Lester, & M. Yogman(Eds.),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4*, (pp. 67-92). New York/London: Plenum.
- 22) Goldberg, S.(1977). Social competence in infancy: A model of parent-infant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23*, 163-177.
- 23) Homel, R., Burns, A., & Goodnow, J.(1987). Parental social networks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159-177.
- 24) Jennings, K. D., Stagg, V., & Connors, R. E. (1991). Social networks and mo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 966-978.
- 25) Ladd, G. W. & Price, J. M.(1986). Promoting children's cognitive and social competence: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ask difficulty and children's perceived and actu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7*, 446-460.
- 26) Levine, S., Elzey, F. F., & Lewis, M.(1969). *California Preschool Social Competency Scal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27) Levitt, M. J., Weber, R., & Clark, C.(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28) Lewis, M., & Shaeffer, S.(1981). Peer behavior and mother infant interaction in maltreated children. In M. Lewis & L. A. Rosenblum(Eds.), *The uncommon child: The genesis of behavior*. New York: Plenum.
- 29) Luster, T., Rhoades, K., & Haas, B.(1989).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values and parenting behavior: A test of the Kohn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39-147.
- 30)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P. H. Musse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1-101). New York: Wiley.
- 31) Melson, G. F., Ladd, G. W., & Hsu, H.(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32) Miller, S. 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33) Pearson, J. E.(1986). The definition and measure-

- men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390-395.
- 34) Riley, D.(1990). Network influences on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In M. Cochran, M. Lerner, D. Riley, L. Gunnarsson, & C. Henderson (Eds.), *Extending Families: The social networks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pp. 131-15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5) Salzinger, S.(1990). Social networks in child rearing and child development.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02, 171-188.
- 36) Sameroff, A. J., & Seifer, R.(1983). Familial risk and child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4, 1254-1268.
- 37) Tietjen, A.(1985). Relationships between the social networks of Swedish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8, 195-216.
- 38) Weintraub, M., & Wolf, B. M.(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s on mother-child interaction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54, 1297-1311.